

경희인

축구 콘텐츠 블루칩, 새로운 바람 일으킨 '경희대 구너'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슛 포 러브는 축구를 통해 기부 활동을 하는 캠페인 단체다. 현재 유튜브에 축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축구 행사 및 국제대회에서 취재 및 홍보 활동도 하며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슛 포 러브의 중심에는 정이수(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13) 동문이 자리하고 있다. 방송 출연과 콘텐츠 기획 등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며 활약 중인 정 동문은 시종일관 '덕업일치(좋아하는 활동과 직업이 일치함)'를 강조했다.

정 동문은 일명 '경희대 구너'로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중이다. '구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아스날의 팬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 동문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와 함께했다. 초등학교 때 떠났던 캐나다 유학 시절, 인기를 끌던 해외축구를 어깨 너머로 보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정 동문은 "한창 박지성 선수가 영국 리그에서 활동해 해외축구가 유행했다"며 "같이 지내던 한인들끼리 모여 응원하며 축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동문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2년 전 축구팀 아스날에 대한 온라인 악플을 읽는 영상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영상은 조회수 157만 회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순수하게 팀을 좋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웃음 포인트가 되어 영상에 묻어 나왔던 것 같다"며 "좋아해주는 분들에게 한 없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시절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 동문은 "별에 대한 수업인 박병에서 문명까지와 조별과제가 많았던 시민교육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방송은 생각지도 못한 분야였다. 첫 출연도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정 동문은 "3년 쯤 전에 슛 포러브를 운영하는 사촌 오빠에게 일손을 보태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얼떨결에 MC를 보게 된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랑을 받아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던 정 동문은 SBS 풋볼 매거진 골 라이브에서 리포터 제안을 받았다. 전국 K리그 구단을 돌며 취재 및 홍보를 하는 역할이었다. 정 동문은 "혼자



정이수 동문은 유튜브 채널 슛 포 러브와 풋볼 매거진 골에서 활동중이다.



“

동문이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분들과 영상을

봐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서 진행을 하다 보니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고나니 추억이 많이 생겼다"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랑 전국을 돌며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웃음 지었다.

해외 선수들을 통역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TV로만 보던 선수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정 동문은 "SBS로부터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통역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며 "그 때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유명 해외 선수를 실물로 봤다"고 말했다. 추억이 쌓일수록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은 커졌다.

그러나 어려움은 항상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늘 떨렸다. 정 동문은 "촬영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서툴다"며 "촬영에 임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담감은 아직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특성 상 몸을 쓰는 일이 많은데 최근 들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낀다"고도 덧붙였다.

방송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힘은 사람들에게 있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아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정 동문은 함께 촬영했던 축구선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촬영 시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따뜻했지만 특히 염기훈 선수와 조원희 선수가 기억에 남는다"며 "항상

축구를 위해 힘 써줘서 고맙다는 말을 선수들에게 직접 들으니 감동이였다"고 말했다.

활동하면서 얻는 뿌듯함도 큰 힘이 됐다. 정 동문은 "슛 포 러브의 처음 기획 의도는 기부였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재밌는 영상을 통해 기부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슛 포 러브는 실제로 자생한방병원 등 많은 후원사들과 함께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도 적성에 맞았다.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출연보다 기획하는 일이었다. 재학생 시절 참여했던 이색체험 동아리가 콘텐츠를 구상하는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다. 정 동문은 "어떤 활동을 하며 놀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하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심 분야는 '유튜브 시대'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제 유튜브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매체가 됐다. 정 동문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며 "언제 어디에서나 큰 장벽 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올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슛 포 러브가 사랑받은 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

은데 부담 없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익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정 동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영상이나 일상을 담은 브이 로그는 꼭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취미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상이 반응이 뜨거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동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덕업일치'로 표현했다. 팬으로서 좋아하는 일인 축구 '덕질'과 축구 콘텐츠를 다루는 지금의 직업이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행운이라고 여기며 행복하게 일하다보니 소망도 하나 생겼다. 스포츠 뉴미디어 방면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정 동문은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축구 콘텐츠 계의 큰 획을 그치고 싶다"며 "출연 뿐 아니라 기획, 편집, 채력 단련 등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꿈을 이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았다. "편집자 분이 경희대 구너라고 자막을 쓰셔서 본의 아니게 우리학교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웃음 지은 정 동문은 "동문이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분들과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9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9.07.05 ~ 08.01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에 특화된 18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9.03.11 ~ 05.1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에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i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